2025년 1월 16일 공보 2025-1-15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경제상황 평가(2025년 1월)

▣ 국내경제는 정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심리 악화로 소비·건설투자 중심으로 24년, 25년 모두 지난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성장경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 시기, 추경 등 경제정책 추진 여부·속도 등에 크게 영향 받을 것임

▣ 소비자물가는 고환율, 유가상승의 상방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정부 물가 안정대책의 하방요인이 상쇄되며 2%에 근접하는 안정 기조 예상

■ 환율·유가 추이, 공공요금 인상 시기, 내수 흐름 관련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

▣ BOX 최근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 유로지역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 자세한 내용은 <붙 임> **경제상황 평가(2025년 1월)** 참조

[문의처: 조사국 · 경제모형실]

경제성장 : 조사총괄팀 차 장 송병호 (02-759-4202), 과 장 이광원 (4167),
조사역 김윤재 (4254) · 김의정 (4150)
세계경제 : 국제종합팀 과 장 고민지 (4280)
물 가 : 물가동향팀 팀 장 박창현 (4231)
경제모형 : 모형전망팀 과 장 박병국 (4137)
경상수지 : 국제무역팀 팀 장 윤용준 (4421)
고용·임금 : 고용분석팀 과 장 이수민 (4291)

[공보관] 02-759-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여 백

<붙 임>

경제상황 평가

2025년 1월

Ⅰ. 세계경제 1

Ⅱ. 국내경제 2

BOX 최근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 배경과 경제적 영향 5

<부 록 1>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10

<부 록 2> 주요 이슈 분석목록..... 12

한국은행
BANK OF KOREA

▸ 국내경제는 수출이 당초 예상대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겠으며 정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심리 악화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는 지난 전망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물가상승률은 고환율과 유가상승에 따른 상방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정부 물가안정 대책 등의 하방요인이 상쇄되면서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Ⅰ.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美관세정책 추진 여파 등을 고려할 때 완만한 둔화흐름이 예상되며, 연준의 더딘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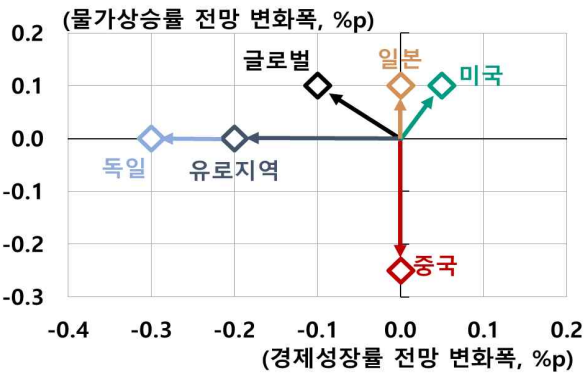
▪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으나 새정부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는 최근의 양호한 성장흐름과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에 기반한 매파적hawkish FOMC 결과, 견조한 고용상황 등으로 약화되었다.

▪ **유로지역**은 주요국 경기부진 지속 및 정치 불안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보다 회복세가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내수부진과 통상마찰 본격화로 성장 둔화 압력이 상당하지만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이를 어느 정도 완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전망기관의 25년 글로벌 경제 전망[1)]



주: 1) 주요 기관 전망치(중간값)의 24.11.28일 대비 25.1.15일 변화폭
자료: Bloomberg

금융시장의 연준 정책금리[1)] 기대 수준[2)]

주: 1) 25.10월 기준
2) FFR선물 내재 정책금리(상단값) 기대 기준
자료: CME Fedwatch

Ⅱ. 국내경제

▢ **금년중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전년보다 크게 둔화되겠으며 정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심리 악화로 소비, 건설투자 등은 지난 전망에 못 미치는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4/4분기중**에는 경제심리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지난 전망을 상당폭 하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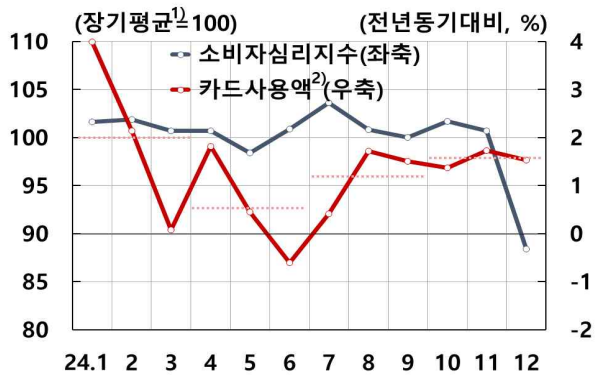
► 이에 따라 **24년 연간** 성장률도 11월 전망$_{2.2\%}$ 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 금년중 성장 흐름을 보면, **상반기**에는 정치 불확실성,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겠으며,

이후 금융여건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정치 불확실성도 점차 해소됨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상·산업정책 및 주변국 대응, 국내정치 상황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심리 및 카드사용액



주: 1) 2003.1월~2023.12월중 평균
2) 실질기준, 점선은 분기평균
자료: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GDP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1)

주: 1) 실질 기준, 24.4/4분기는 10~11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물가상승률은 고환율과 유가상승에 따른 상방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 등에 따른 하방요인이 상쇄되면서 지난 전망CPI 1.9%, 근원 1.9%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이다.**

* 자동차 개소세 인하(상반기중), 농산물가격 안정대책(할인지원, 할당관세) 지속,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및 시기 분산·이연 등

► **24년**은 소비자물가 2.3%, 근원물가 2.2%로 지난 전망에 부합하였다.

▪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초**에 2%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소폭 낮아져 1%대 후반에서 등락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목표수준 근방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물가**도 연중 2%에 근접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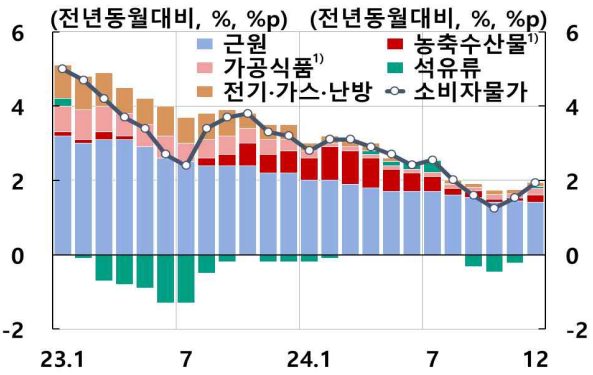
* 24.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말 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그간 높아진 환율 영향 등으로 1.9%(11월 1.5%)로 높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1.8%(11월 1.9%)로 소폭 둔화

▪ 물가 전망경로 상에서 환율·유가 움직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폭,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주: 1) 근원품목 제외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올해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 **24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4분기중 통관수출이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본원소득수지도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11월 전망치$_{90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 **향후 경상수지**는 수출이 높은 수준에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 수준$_{13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4년**은 12월 취업자수가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완료,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 전망$_{17만명}$을 소폭 하회하는 16만명을 나타내었다.

▪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 보건·복지 및 정보통신의 추세적인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나겠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황부진에 따라 감소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BOX 최근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 배경과 경제적 영향

※ 이 보고서의 집필자는 미국유럽경제팀 민동길 조사역, 이택민 과장, 이현아 과장, 백창인 조사역입니다.
* 대표 집필자: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민동길 조사역(02-759-5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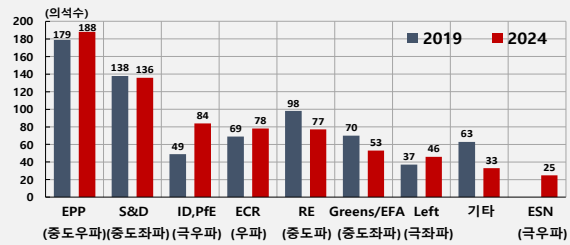
2024년이 '슈퍼선거의 해'[1]였다면, 2025년은 일부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치 불확실성의 해'[2]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프랑스의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미약한 성장세를 보였던 유로지역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아울러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두 국가의 리더십 부재는 유럽의 구심점 상실로 이어져 향후 美관세정책 변화 등 대외충격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대내불안과 대외도전 상황은 최근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최근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 불확실성 증대 배경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은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를 기점으로 증대되었다. 선거 결과 '反이민'·'反그린딜'·'EU 회의주의'를 내세운 극우 정당들이 약진한 반면, 중도·환경주의 정당들은 의석수가 감소하였다<그림1>.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프랑스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뒤 조기총선(7월)을 통해 불리한 정국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여당 패배, 의회의 좌파·중도·극우 삼분할 등으로 의회가 교착상태(hung parliament)에 빠지면서 입법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그림2>. 독일도 유럽의회 선거에서 연정 참여정당들의 의석수가 극우정당(AfD)에 미치지 못했으며[3], 이후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도 AfD에 밀려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의회 선거, 극우 약진 및 중도·환경주의 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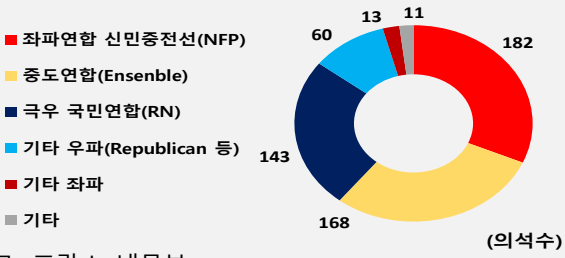
[그림 1] 유럽의회 선거 결과



자료: 유럽의회

프랑스 총선, 여당 패배 및 극우 역대 최대 의석 확보

[그림 2] 프랑스 조기총선(7월) 결과



자료: 프랑스 내무부

이러한 결과는 좌·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사회·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영향력을 확대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 재정위기를 거치며 장기간 저성장에 시달려온 EU 유권자들 사이에 기성 정치세력들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어 왔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었고, 러·우전쟁으로 인한 물가급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그림3,4>. 극좌·극우정당들은 이러한 대중의 불만을 파고들어 정치 엘리트와 이민자를 '외부의 적'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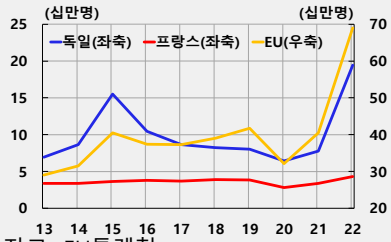
1) 미국 대선, 우리나라와 EU·일본 의회선거 등을 포함해 전세계 76개국에서 전세계 인구의 절반(약 42억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당초 예정보다 앞서 조기총선이 실시되었다.

2) G7 국가중 본고에서 자세히 살펴볼 독일·프랑스 이외에도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중의원 선거에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집권 자민당이 과반수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캐나다 총리도 최근 트럼프 관세정책 대응 문제를 놓고 갈등을 거듭하다 총리직 사임을 결정하였다.

하면서 지지를 얻었고, 결국 유럽정치의 주요 세력 중 하나로 부상했다[4]. 그 결과 정당간 이념 간극이 확대되었고, 연정 구성과 협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정치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독일·프랑스·EU 이민자 유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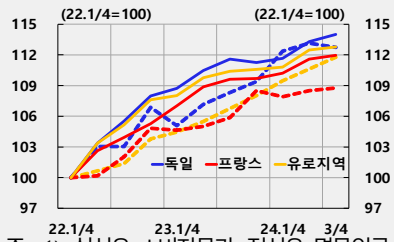
[그림 3] 이민자 유입 규모



자료: EU통계청

러·우전쟁 이후 명목임금 회복세 소비자물가 상승 대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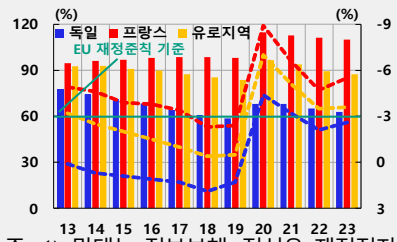
[그림 4] 소비자물가 및 명목임금 추이



주: 1) 실선은 소비자물가, 점선은 명목임금
자료: EU통계청

독일은 재정건전성 상대적으로 양호, 프랑스는 재정건전성 취약

[그림 5] 재정적자·정부부채(GDP대비)[1)]



주: 1) 막대는 정부부채, 점선은 재정적자
자료: EU통계청

이러한 정치 갈등은 최근 독일·프랑스에서 재정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심화되었고, 작년말 양국의 내각이 붕괴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독일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였으나 경기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반면, 프랑스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간 이어온 결과 재정적자·정부부채 누증으로 재정적자 감축대상 국가로 지정$_{EU}$되어 재정긴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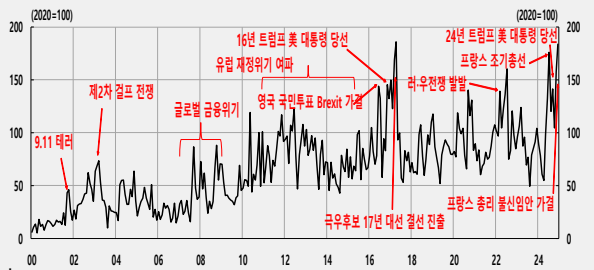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에서는 연정내 총리가 속한 중도좌파 정당$_{SPD·Green}$들이 부채제동 debt brake 조항 완화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경기부양 방안으로 제안하였으나 재무장관 소속 중도우파 정당$_{FDP}$이 감세 및 복지지출 삭감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고 연정내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총리가 재무장관을 해임하면서 42년만에 연정이 붕괴되었으며, 이후 총리 신임투표마저 부결됨에 따라 불확실성지수[5)]$_{EPU}$가 크게 상승하였다<그림6>. 한편,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긴축 예산안$_{지출축소·증세}$을 마련하였으나 좌파에서는 복지지출 축소에, 극우진영에서는 증세에 반대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그리고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62년만에 처음으로 내각이 총사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는 당분간 임시 예산안을 통한 재정집행이 불가피해 경제 불확실성도 고조되었다<그림7>.

독일 24.11월 불확실성지수 역대 최고수준, 프랑스는 24.12월에 역대 최고 수준(17.4월)에 근접

[그림 6] 독일 불확실성지수

자료: Baker et. al.(2016)

[그림 7] 프랑스 불확실성지수



자료: Baker et. al.(2016)

3) 유럽의회 선거 당시 독일 연정참여 정당은 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당(Green)으로 각각 14석, 5석, 12석을 확보하였고,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15석을 확보하였다.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은 기민당/기사당(CDU/CSU)으로 총 29석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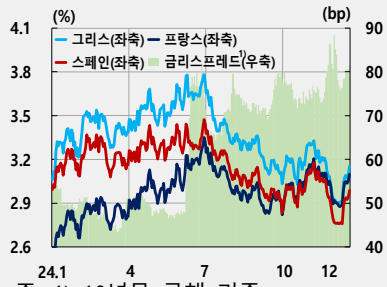
4) 美 트럼프 귀환도 유럽 정치지형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인상, 나토 탈퇴 위협 등 전통적 美-유럽 동맹을 약화시키는 트럼프의 철저한 '거래 중심' 전략은 유럽 기성 정당들의 입지를 흔들 수 있다. 반면, 反이민·고립주의를 앞세운 극우정당들은 그의 정책에 동조하며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핵심 측근인 머스크가 AfD를 공개 지지한 것은 올해 2월 실시될 독일 조기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적 영향

최근 독일·프랑스의 정치불안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우선 금융시장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24.6월 유럽의회 선거 직후 의회해산에 따른 정국불안, 극우정당증세반대의 조기총선 승리 예상에 따른 재정취약성 심화 우려 등으로 독일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6]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프랑스 국채금리는 스페인과 그리스[7]를 상회하거나 이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8>. 주가도 정국불안 등에 따른 경기악화 우려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8]하고 있다<그림9>. **그 결과 지난해 12월 내각 붕괴 이후 대외신인도가 악화됨에 따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도 하향조정Aa2→Aa3되었다.** 환율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로화 가치가 기조적인 하락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전후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요인도 있었지만 유럽 정치불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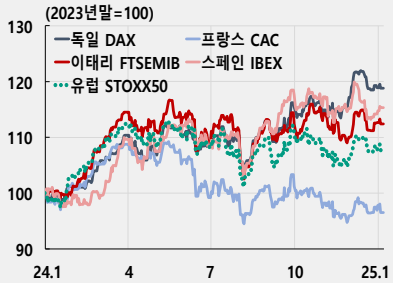
프랑스는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큰 폭 확대, 주가도 부진

[그림 8] 주요국 국채금리 및 독-프 금리스프레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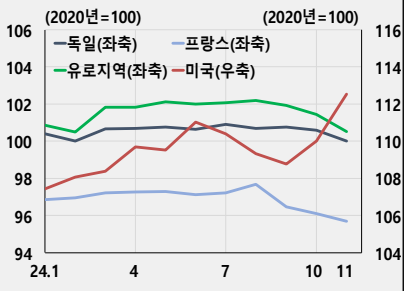
주: 1) 10년물 국채 기준
자료: 블룸버그

[그림 9] 유럽 국가별 주가지수



자료: 블룸버그

[그림 10] 실질실효환율



자료: BIS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도 위축시키고 있다. 우선 가계의 입장에서는 향후 소득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예비적 저축동기가 증대되고 소비를 줄이려는 심리가 커진다. 기업도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의심될 경우 현재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중요한 투자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이후 프랑스는 가계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저축률이 상승하였으며 기업업황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11~13>. 독일도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심리지수가 꾸준히 하락하였는데 이는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최근 제조업 부진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9)]<그림13>.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2변수 VAR모형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는 경제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4>.

5)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는 뉴스기사들을 식별하여 산출(Scott R. Baker)되며, 과거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정치적 리스크가 증대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6) 동 신용리스크 확대로 인한 국채 이자비용 증가효과는 약 10억유로(GDP대비 0.03%)로 추산된다(2025년 국채발행 예정액 3000억유로 가정). 한편 향후 재정긴축(600억유로)을 하지 않아서 국채금리가 이탈리아 수준으로 추가 상승할 경우 이자 증가효과는 약 23억유로(GDP대비 0.08%)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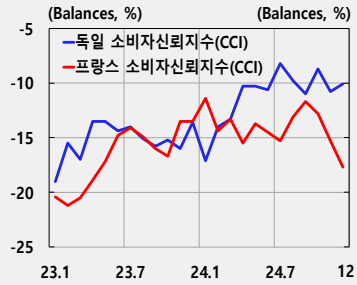
7) 스페인·그리스는 유로 재정위기 당시 신용등급이 큰 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재정여건 개선 등으로 신용등급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8) 2024년중 프랑스 주가 상승률은 –3.6%로, 독일(18.8%)을 비롯한 여타 유로국가(8.3%)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정치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향후 부채제동 조항(debt brake) 완화 등 재정확대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흐름을 보였다.

9) 주요 기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25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독일: 24.5월 1.1%→ 9월 1.0% → 12월 0.7%, 프랑스: 1.3%→ 1.2% → 0.9%, OECD)하였는데 주요 원인중 하나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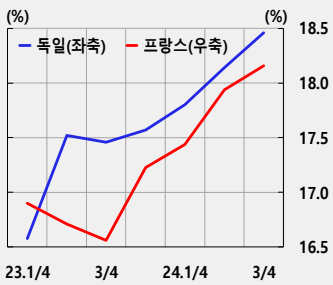
정치 불확실성 증대로 가계·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10)]

[그림 11] 소비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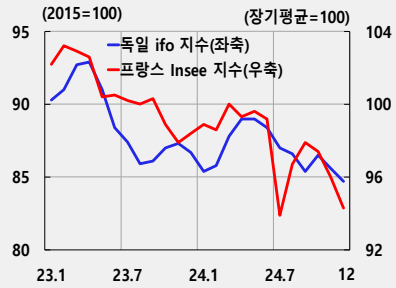
자료: EU통계청

[그림 12] 가계저축률



자료: EU통계청, 프랑스 통계청

[그림 13] 기업업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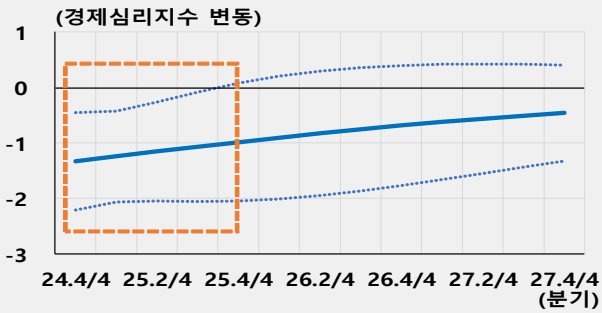


자료: 독일 Ifo연구소, 프랑스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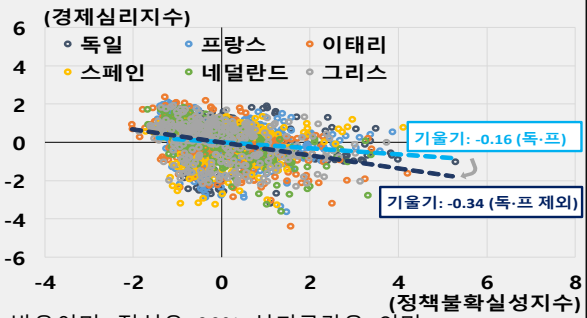
또한 독일·프랑스의 내각붕괴가 이들 국가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11)]하여 다른 유로지역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심리간에는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독일, 프랑스에 비해 정치 혼란이 빈번했던 국가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그리스들은 더욱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그림15>. 이는 정치불안이 극심해질 경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경제주체의 심리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불확실성 확대와 경제심리 위축 간 연관성이 상당함

[그림 14] 정책불확실성에 대한 경제심리 반응[1)]



[그림 15] 정책불확실성과 경제심리 간 산포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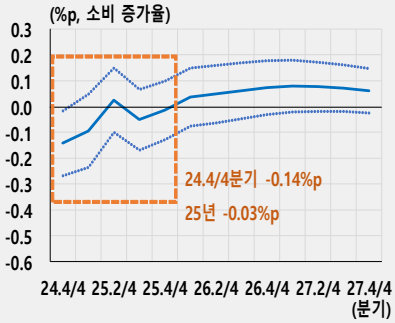
주: 1) 정책불확실성 1표준편차 충격에 대한 경제심리지수 반응이며,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의미
2)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태리·네덜란드·그리스를 대상으로 각 지수를 표준화. 1987.1월 이후 국가별 가용한 월별 자료를 활용
자료: 조사국

이러한 심리위축 등을 감안하여 24.4/4분기 독일·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럽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추정$_{VAR\ 모형}$[12)]해 보았다. 그 결과 불확실성 증대는 유로지역 경제성장에 단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소비보다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16,17>. 24.4/4분기에 GDP가 0.15%p 낮아지는 등 단기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25년 연간으로는 0.07%p 낮아지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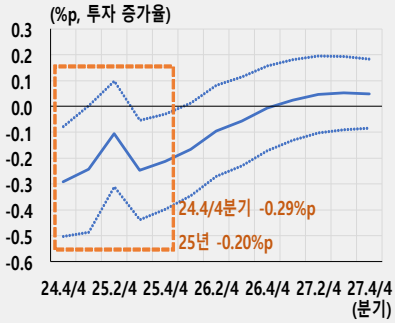
10)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3/4분기중 심리지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파리올림픽 개최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후 재차 하락하면서 상반기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1) 정치 상황이 안정적인 경우의 동학만 포함되면서 불확실성이 경제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12) 분석 변수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경제심리지수, 단기금리, 인플레이션, 소비, 투자, GDP를 포함하였으며 이 순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외생적인 가운데 심리 및 금융시장 변수가 빠르게 움직이고 실물변수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인다는 가정에 기반하였다. 분석기간은 1999년 4/4분기부터 2024년 3/4분기이며 SIC에 따라 시차를 2로 설정하였다.

정책불확실성 확대는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단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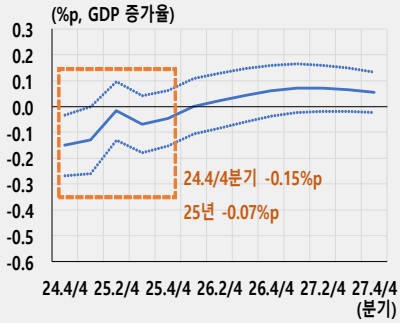
[그림 16] 불확실성에 대한 소비 반응



[그림 17]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반응



[그림 18] 불확실성에 대한 GDP 반응



주: 1)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조사국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독일·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은 당분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프랑스는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와 의회간 갈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독일은 총리 신임투표 부결과 의회 해산으로 조기총선$_{2.23일}$을 앞두고 있지만, 다당제 체제와 정당간 이념차이로 총선후에도 내각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13)]. 특히 주요정책$_{재정·이민·환경}$에서 정당간 이견이 커 연정협상과 정책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프랑스는 여당이 의회내 소수당인 데다 좌파·중도·극우간 극심한 대립으로 금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집행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총선을 통해 다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으나 하원 총선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치를 수 없어 다음 선거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해 현재의 불안정한 정국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 독일·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는 심리경로를 통해 투자를 중심으로 유로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6월 이후 ECB의 통화긴축 완화 기조는 금년에도 이어지면서 유럽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으나 정치 불안정에 따른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은 이러한 금리인하의 수요진작 효과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국가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경제는 성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美새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무역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부진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21.12월에 출범한 SPD 주도 신호등 연정은 총선(21.9월) 이후 약 3개월만에 구성되었고, 18.3월에 출범한 CDU/CSU 주도 대연정은 약 6개월 소요되었다.

<부록 1>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세계경제]

(전기대비, %)		2023	2024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미국	GDP성장률[1]	2.9	..	1.6	3.0	3.1	..	-	-	-
	산업생산[2]	0.2	..	-0.4	0.6	-0.1	..	-0.4	-0.1	..
	소매판매	3.4	..	0.0	0.5	1.3	..	0.5	0.7	..
	소비자물가[3]	4.1	2.9	3.2	3.2	2.6	2.7	2.6	2.7	2.9
	비농업취업자수 증감(천명)	3,531	2,509	771	577	432	466	43	212	256
유로	GDP성장률	0.4	..	0.3	0.2	0.4	..	-	-	-
	산업생산[2]	-1.7	..	-1.0	-0.3	-0.1	..	0.2	0.2	..
	소매판매	-1.9	..	0.1	0.3	1.0	..	-0.3	0.1	..
	통관수출[4]	-0.8	..	0.7	0.2	-0.7	..	-1.6	..	..
	소비자물가[3]	5.4	2.4	2.6	2.5	2.2	2.2	2.0	2.2	2.4
중국	GDP성장률[3]	5.2	..	5.3	4.7	4.6	..	-	-	-
	산업생산[2][3]	4.6	..	6.1	5.9	5.0	..	5.3	5.4	..
	소매판매[3]	7.2	..	4.7	2.6	2.7	..	4.8	3.0	..
	고정투자[3][5]	3.0	..	4.5	3.9	3.4	..	3.4	3.3	..
	통관수출[3]	-4.7	5.8	1.4	5.6	6.0	10.0	12.7	6.7	10.7
	소비자물가[3]	0.2	0.2	0.0	0.3	0.5	0.2	0.3	0.2	0.1

주: 1) 전기대비 연율 2) 광공업 기준 3) 전년동기대비 4) 역내거래 제외 5) 누계 기준
자료: Fed, BEA, BLS, Eurostat, 중국국가통계국, 해관총서 등

[국제에너지 가격]

(기간중 평균)	2023	2024							2025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3]
Dubai유[1]	82	80	81	85	79	74	75	73	73	79
Brent유[1]	82	80	82	85	79	74	75	73	73	79
유럽 천연가스[2]	41	35	28	32	36	43	40	45	45	47

주: 1) 달러/배럴 2) 유로/MWh 3) 1.1~1.15일까지의 평균
자료: Bloomberg

[국내경제]

(전기대비, %)		2023	2024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성장	GDP 성장률	1.4	..	1.3	-0.2	0.1	..	-	-	-
	소매판매액	-1.5	..	-0.5	-0.8	-0.6	..	-0.8	0.4	..
	(전년동기대비)			(-2.1)	(-2.9)	(-1.9)	..	(-0.9)	(-1.9)	..
	설비투자지수	-4.9	..	-3.8	-0.2	10.3	..	-5.9	-1.6	..
	(전년동기대비)			(0.3)	(-1.5)	(10.7)	..	(5.5)	(2.6)	..
	건설기성액	7.3	..	4.9	-6.2	-5.0	..	-4.1	-0.2	..
	(전년동기대비)			(4.1)	(-3.0)	(-9.6)	..	(-10.8)	(-12.9)	..
	통관수출(억$)	6,322	6,837	1,633	1,715	1,737	1,752	575	563	614
	(전년동기대비)	(-7.5)	(8.1)	(8.0)	(10.1)	(10.5)	(4.2)	(4.6)	(1.3)	(6.6)
	통관수입(억$)	6,426	6,321	1,551	1,570	1,600	1,599	543	507	549
	(전년동기대비)	(-12.1)	(-1.6)	(-10.9)	(-1.4)	(6.2)	(0.9)	(1.7)	(-2.5)	(3.3)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관세청

(전년동기대비, %)		2023	2024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물가	소비자물가	3.6	2.3	3.0	2.7	2.1	1.6	1.3	1.5	1.9
	근원물가[1]	3.4	2.2	2.5	2.2	2.1	1.8	1.8	1.9	1.8
경상수지	경상수지(억$)	355	..	168	212	264	..	98	93	..
	상품	341	..	189	256	253	..	81	98	..
	서비스	-257	..	-69	-45	-59	..	-17	-21	..
	본원·이전	271	..	48	1	69	..	34	16	..
고용	취업자수 증감(만명)	32.7	15.9	29.4	14.6	14.6	5.2	8.3	12.3	-5.2
	실업률(S.A., %)	2.7	2.8	2.8	2.8	2.5	3.0	2.7	2.7	3.7

주: 1) 에너지, 식료품 제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부록 2> 주요 이슈 분석목록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 경제상황 평가)

수록호	제 목	작성부서/팀	대표저자
2024.2월	BOX 우리나라의 對아세안5 수출 특징 및 향후 전망	국제무역팀	남석모
	BOX 최근 한국 · 미국 · 유로지역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평가	물가동향팀	임웅지
	핵심이슈 가계별 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거시분석팀 경기동향팀	정동재
5월	BOX 최근 G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국제경제부	최병재
	BOX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경기동향팀	최영우
	핵심이슈 고물가와 소비: 가계의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거시분석팀 모형전망팀	정동재
	중장기 심층연구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경제연구원	조태형
7월	BOX 최근 수출 개선에도 수입이 부진한 배경	국제무역팀	남석모
8월	BOX 최근 미국 경기흐름에 대한 평가	미국유럽경제팀	이현아
	BOX 미국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對미 수출에 대한 영향 점검	국제무역팀	박동훈
	BOX 최근 민간소비 흐름 평가	경기동향팀	이준호
	BOX 부문별 물가상황 평가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단기 물가 흐름 예측	물가동향팀 인천본부	이승호 이동재
	핵심이슈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對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거시분석팀	정선영
11월	BOX 내수민감물가를 통해 본 향후 물가 흐름	물가동향팀	부유신
	BOX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고용분석팀	이수민
	핵심이슈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	국제무역팀 중국경제팀	임웅지
	중장기 심층연구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경제연구원	이동원
2025.1월	BOX 최근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 배경과 경제적 영향	미국유럽경제팀	민동길